

빅 스텝 트라우마와 2월 금통위

코로나19 이후 커진 연초 계절성 효과와 '22년 연말 한파로 인한 이연효과 감안 시 1월 미국 수요 서프라이즈를 추세로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한국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 한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판단 유지

다시 자극된 빅 스텝 트라우마

1월 발표된 12월 CPI, 소매판매가 쇼크였던 데 반해 2월 발표된 1월 CPI, 소매판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연말, 연초 주요 수요 지표들이 쇼크와 서프라이즈의 양극단 값을 기록하자 시장의 경기 판단 역시 하드랜딩 우려에서 노랜딩 가능성으로 극적 변화. 물가 판단도 디스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빠르게 약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주 블라드와 메스터 총재가 50bp 인상 옵션을 언급하며 시장의 빅 스텝 트라우마를 자극

'22년 5월 BLS는 코로나로 인해 계절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다소 제한적임을 지적. 실제로 '21년 이후 1월 비농업 신규 고용, 소매판매, 물가의 전월비 데이터가 시장 전망치를 대부분 크게 상회. 즉, 연초 계절성 효과가 크다는 것. 이에 더해 BEA의 주간 미국 카드 소비 데이터 감안 시 '23년 1월 수요 지표는 '22년 연말 한파로 인한 이연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 결국 12월 지표 쇼크 이후 1월 서프라이즈 반전을 추세로 인식하기는 시기상조. 실제로 2월들어 주간 미국 카드 소비 금액은 재차 하락하고 있음

연초 미국 경기 하드랜딩과 연내 50bp 인하 기대도 과도했지만 1월 지표를 근거한 노 랜딩 역시 현재로서는 과도하다는 판단. 시장은 수요 지표들의 지속성을 확인할 시간 필요.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박스권 상단 등락 전망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인상 사이클 종료 판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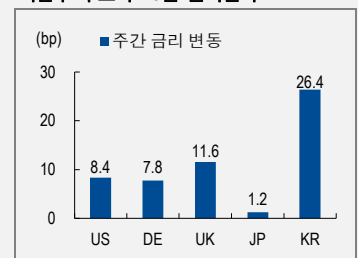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3.5%).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이 과도하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둘 것

금번 금통위의 핵심은 최근 달러/원 환율 급등에 대한 총재의 판단. 당사는 최근 달러/원 환율 반등이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 이에 더해 최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미국 Terminal rate가 상향 조정되며 한-미 금리 역전 폭 기대 값이 '22년 연말보다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달러/원 환율은 '22년 10월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상황. 이를 감안하면 환율 방어를 위한 인상 사이클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 인상 사이클 종료 판단 유지

한국 국고채 5년 금리 vs 기준금리



지난주 주요국 10년 금리변화



주간 글로벌 채권시장 전망

구분	구분
미국채 10년	3.65~3.90%
국고채 3년	3.45~3.70%
국고채 5년	3.45~3.70%
국고채 10년	3.40~3.65%



강승원 (채권전략)
02)2229-6421, sw.kang@nhqv.com

박윤정 (선진국 채권)
02)2229-6751, yj.park@nhqv.com

CONTENTS

I. 주간 채권시장 전망	3
1. 주간 채권시장 전망	
2. 주간 채권시장 동향	
3. 주간 채권시장 요인분석	
II. 스프레드 전망 및 투자전략	9
1. 장단기 스프레드 전망	
App. Economic Calendar	15

I. 주간 채권시장 전망

1. 주간 채권시장 전망
2. 주간 채권시장 동향
3. 주간 채권시장 요인분석

1. 채권시장 전망

빅 스텝 트라우마와 2월 금통위

**연말 지표 쇼크에서
연초 지표 서프라이즈 반전
이에 시장의 빅 스텝
트라우마 자극**

시장 분위기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1월 발표된 12월 CPI,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쇼크를 기록했는데 반해 지난주 발표된 1월 CPI, 소매판매는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연말, 연초 주요 수요 지표들이 쇼크와 서프라이즈의 양극단 값을 기록하자 시장의 경기 판단 역시 연초 하드랜딩 우려에서 최근 노 랜딩 가능성으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물가 판단도 파월의 디스 인플레이션 발언의 힘이 크게 약화됐다. 이러한 극적인 매크로 판단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블라드, 메스터 총재가 3월 50bp 인상 옵션을 언급하며 시장의 빅 스텝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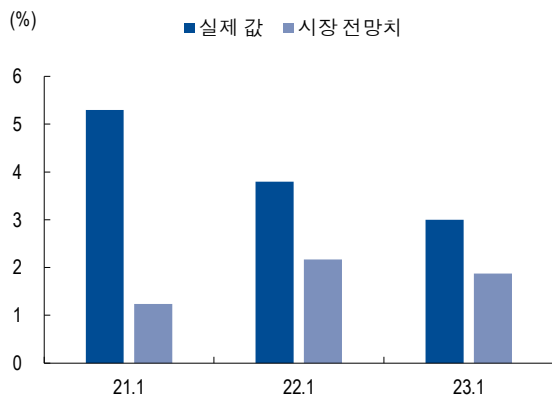
**계절성 및 12월 한파로
인한 수요 지연 효과
감안 시 1월 서프라이즈를
추세로 인식하기는
시기상조로 여겨짐**

당사는 연초 제기된 미국 경기 하드 랜딩 우려와 이로 인한 연내 50bp 인하 기대도 과도했지만 현재 미국 경기 노 랜딩 기대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매크로 지표의 극적 변화에 대해 계절 조정 효과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22년 5월 BLS는 코로나로 인해 계절 조정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다소 제한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특기할 만한 점은 '21년 이후 1월 비농업 신규 고용, 소매판매, 물가의 전월비 데이터가 시장 전망치를 대부분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즉, 연초 계절성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BEA의 주간 미국 카드 소비 데이터 감안 시 '23년 1월 수요 지표는 '22년 연말 한파로 인한 지연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12월 지표 쇼크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서프라이즈 반전을 추세로 인식하기는 시기 상조다. 실제로 2월 들어 미국 카드 소비 금액은 1월 대비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

**인하 기대감 축소와
빅 스텝 인상은 다른 얘기
당분간 금리 박스권 등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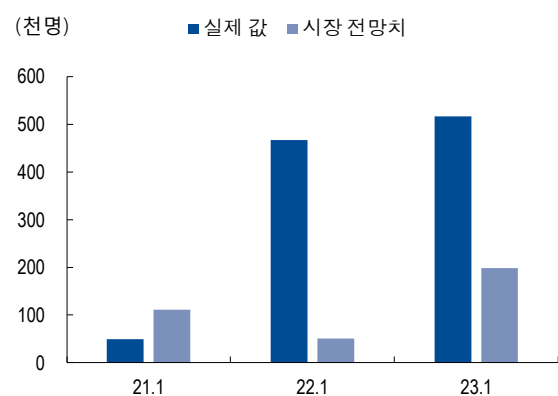
물론 계절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1월 지표 서프라이즈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1월 지표를 근거한 노 랜딩 기대 및 빅 스텝 우려 역시 과도하다. 인하 기대감 축소와 빅 스텝 금리인상은 다른 얘기다. 당분간 시장은 수요 지표들의 지속성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현재 박스권 상단 레벨에서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그림1. 코로나19 이후 1월 소매판매 시장 전망치와 실제 값 비교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코로나19 이후 1월 비농업 신규 고용 시장 전망치와 실제 값 비교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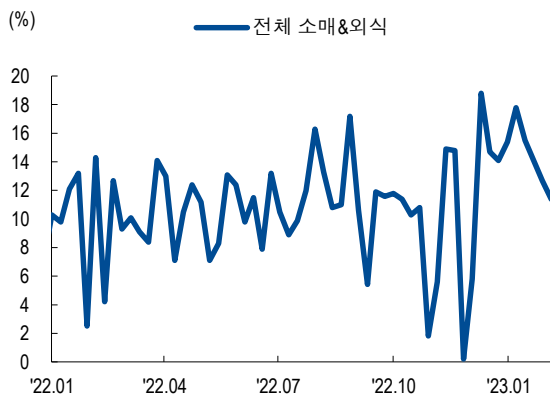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2월 금통위는 연속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며 기준금리 동결(3.5%)을 전망한다. 금번에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1월 금통위에서 시사한 바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준금리 동결과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 자체가 비둘기과적인 만큼 총재는 시장이 이를 과도하게 비둘기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금번 금통위의 핵심은 환율에 대한 총재 판단 환율 방어를 위한 추가 인상을 시사하지는 않을 것

경기 및 물가 전망치 조정은 1월 금통위에서 이미 시사해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금번 금통위의 관전 포인트는 최근 달러/원 환율 급등에 대한 총재의 판단이다. 실제로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들은 환율 불안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당사는 최근 달러/원 환율 반등이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미국 Terminal rate가 상향 조정되며 한-미 금리 역전 폭 기대 값이 확대됐음에도 달러/원 환율은 '22년 10월 말 수준과 격차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총재가 환율 방어를 위한 인상 사이클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당사는 한국의 추가 인상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미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의 체력 대비 높다.

그림3. 2월 들어 미국 카드소비액은 다시 축소되고 있음



주: 코로나19 직전 대비 카드 사용 금액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최근 환율 반등에도 여전히 2022년 10월 레벨과는
격차가 큰 상황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 채권시장 동향

1) 선진국 채권시장 동향

연쇄적인 지표 서프라이즈 흐름에 미국채 금리는 상승

주초 뉴욕 연은 서베이에서 3년 가계 기대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완화되며 미국채 시장은 CPI 발표를 앞두고 강세 흐름을 선보였다. 그러나 1월 CPI 물가 상승률(y-y)이 6.4%로 예상치 6.2%를 상회하자 추가 인상 베팅이 유입됐다. 더불어 미국 1월 소매판매 상승률(m-m)은 3%, 1월 PPI 상승률(y-y)은 6%로 둘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블라드의 50bp 인상 발언이 금리 상승 폭을 키웠다. 주 후반 연휴를 앞두고 일부 숏 커버링 물량 유입과 일부 위원들의 25bp 금리인상 선호 발언에 주중 금리 상승 폭이 일부 반납됐다. 결국 10년 국채 금리는 전주대비 8.38bp 상승한 3.8196%에 마감했다.

유럽의 지표도 긴축 우려를 부추기며 유럽 금리도 공히 상승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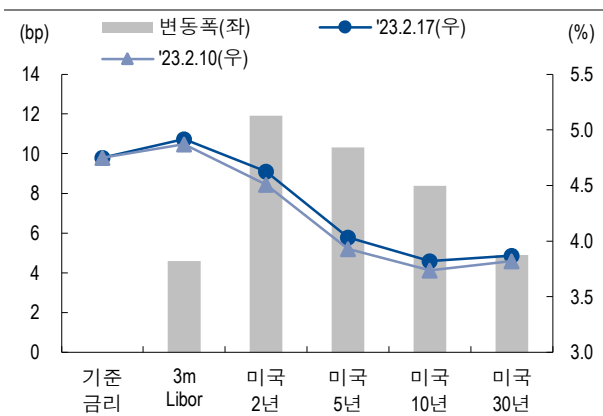
유럽 금리도 미국 지표 호조에 따라 각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베팅이 부각되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선보였다. 특히, 유럽 집행위 동계 경제전망에서 2023년 유로존 GDP 성장률(y-y)이 0.9%로 0.6%p 상향 조정된 점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영국의 10~12월 임금 상승률(y-y)이 6.7%로 높은 레벨대를 계속 유지하자 기준금리 예상 궤적이 상향 조정되며 영국 금리가 급등했다. 비록 BoE의 Pil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잉 긴축을 우려했지만, 1월 소매판매 증가율(m-m)도 0.5%로 서프라이즈를 보여 금리 상승세가 계속됐다. 결국 독일 10년 국채 금리는 전주대비 7.8bp 상승한 2.441%, 영국 10년 국채 금리는 11.6bp 상승한 3.510%에 마감했다.

2) 국내 채권시장 동향

미국 물가와 환율 부담에 국고채 시장 약세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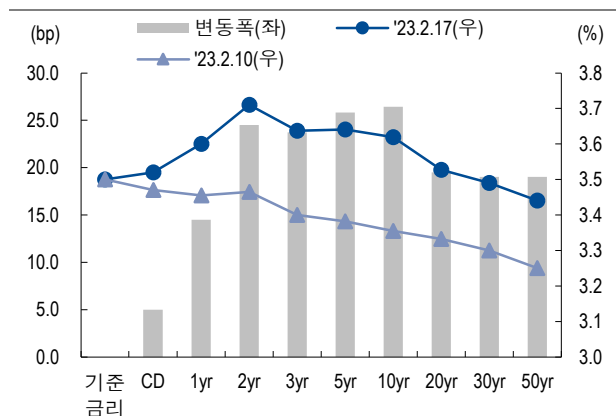
2022년 미 CPI 계절조정 업데이트로 작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일제히 상향 조정되자 물가 경계심이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는 주초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후 1월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 확인 후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높아진 금리 레벨에 대기 매수 수요도 유입되며 선진국 대비 금리 상승 폭은 제한됐다. 그러나 금요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급격히 상승해 2월 금통위에서 환율을 감안한 금리인상이 나올 우려가 크게 부각됐다. 여기에 주간으로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계속 확대된 점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결국 한국 10년 국채 금리는 전주대비 26.4bp 상승한 3.619%에 마감했다.

그림5. 주간 미국 수익률 곡선 변화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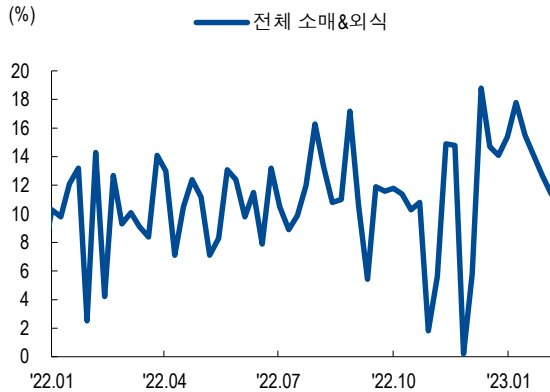
그림6. 주간 국고채 수익률 곡선 변화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3. 주간 채권시장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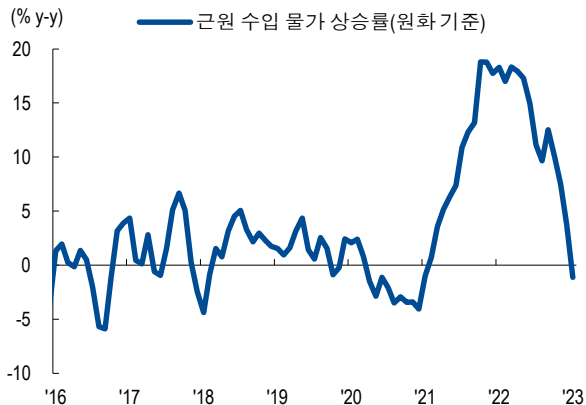
그림7. 1월 미국 소비 서프라이즈는 '22년 연말 한파로 인한 소비 급감의 이연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판단



- 1월 미국 소매판매는 3.0%(m-m)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 다만, BEA가 제공하는 주간 미국 카드 소비액을 살펴보면 '22년 11~12월 중 소비 급감이 확인. 이는 연말 한파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보이며 1월 소비 급증은 이연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판단. 2월들어 미국 카드 소비 금액은 다시 축소 중. 1월 소비 서프라이즈를 추세로 판단하기는 여전히 시기상조로 여겨짐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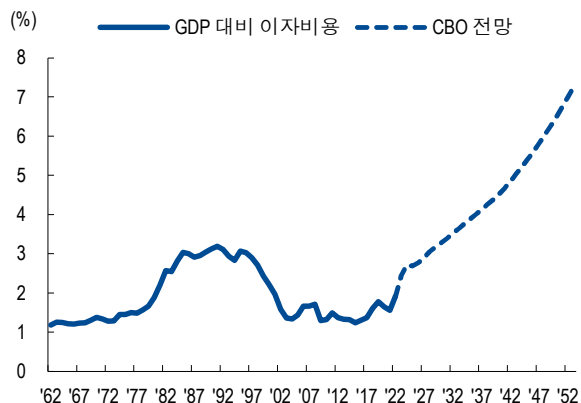
그림8. 1월 근원 수입 물가 상승률은 (-) 영역에 진입. 국내 물가 우려는 다소 제한적



- 1월 수입 물가 상승률은 1.72%, 근원 수입 물가 상승률은 -1.13%를 기록하며 빠르게 축소되는 상황. 비록 지난주 금요일 가파른 원화 약세가 전개되었지만, 작년 대비 여전히 원화 레벨 및 에너지 가격이 낮아 물가 상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 특히, 작년 2분기 수입 물가 상승률이 20%대를 상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 리오프닝과 추경으로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았기 때문. 작년 4분기부터 가계소비 둔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CBO의 2월 장기 전망상 미국의 GDP 대비 이자비용은 상승 궤적. 향후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슈에 주목할 필요



- 미국 CBO는 2월 장기 전망 업데이트에서 미국 부채 궤적이 기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제시. 미국채 10년 금리를 3.7~8%대로 가정할 경우,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2.4%에서 향후 7%까지 상승. 역사적인 평균이 1.9%. 해당 전망은 공화당의 재정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시킬 것을 보이며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의 난항이 예견됨. CBO는 세수 여건에 따라 7월 전에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2020~22년과 달리 미국 경기가 통화와 재정의 쌍둥이 긴축 환경을 버티기 어려울 전망

자료: CBO,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구리/금 가격비율 vs 미국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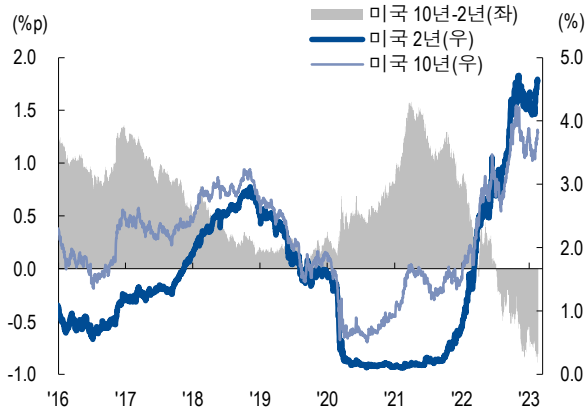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미국 10년 BEI와 국제유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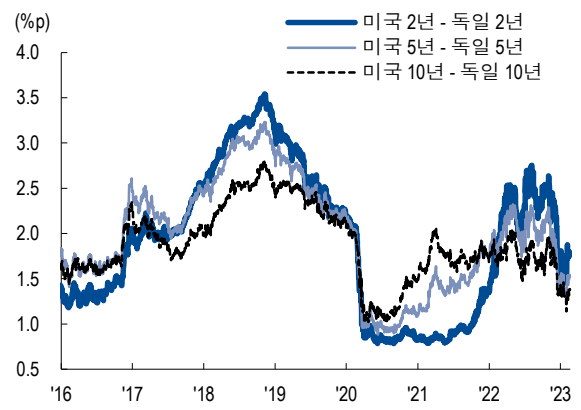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미국채 10년-2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만기별 미국-독일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유로 및 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주요 재정불안 국가들의 EMU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I. 스프레드 전망 및 투자전략

1. 장단기 스프레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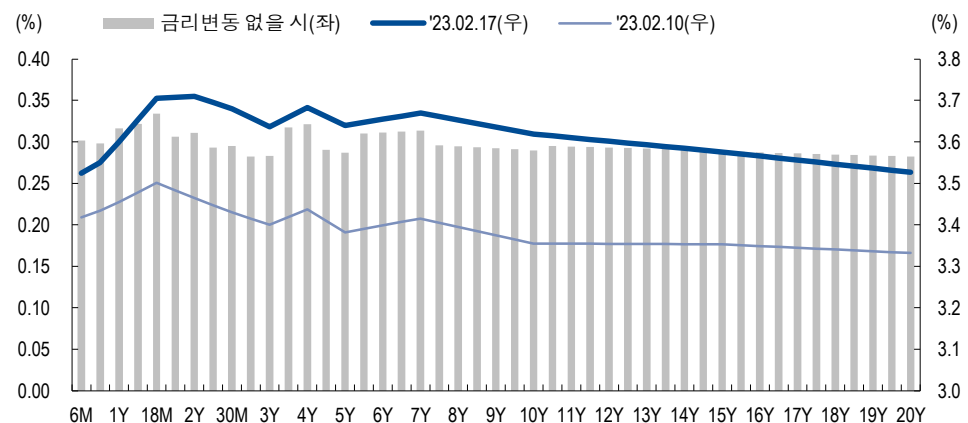
1. 장단기 스프레드 전망

1) 수익률 곡선 및 장단기 스프레드 전망

3/10 스프레드 역전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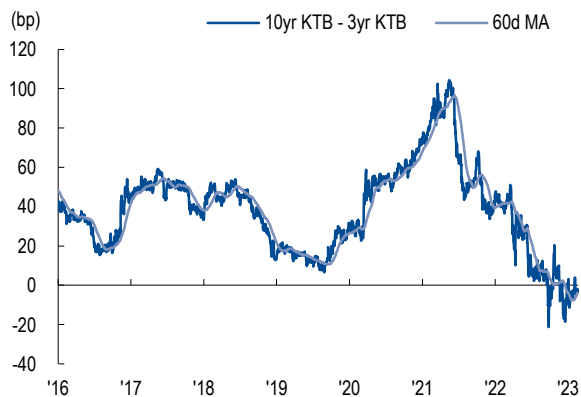
장단기 스프레드는 역전 폭 확대를 전망한다. 금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당사는 '22년 금리인상이 상당 부분 환율 방어를 위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미 한국 경제의 체력 보다 기준금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미국 실질 기준금리 보다 높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최근 미국 경기지표 서프라이즈로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의 Terminal rate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쉽게 기준금리 정상화 시도를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의 체력 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강제된 금리 동결은 그 자체로 경기를 악화시킨다. 커브 역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16. 금리변동 없을 경우 기대수익률 vs 수익률 곡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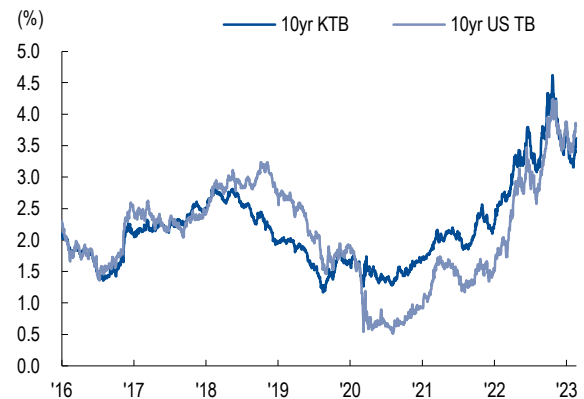
주: 1개월 기대수익률은 이자수익과 Rolling-Effect 함께 고려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그림17. 국고채 10년 - 국고채 3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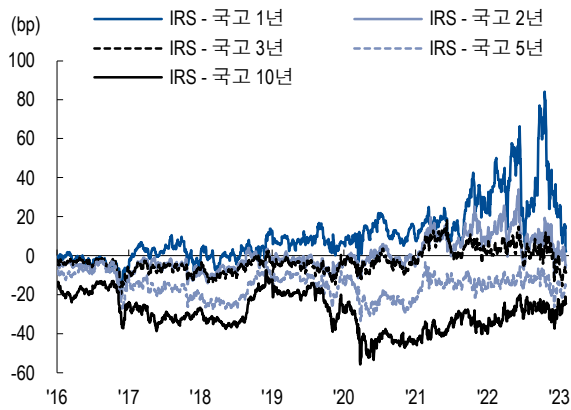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미국채 10년 vs 국고채 10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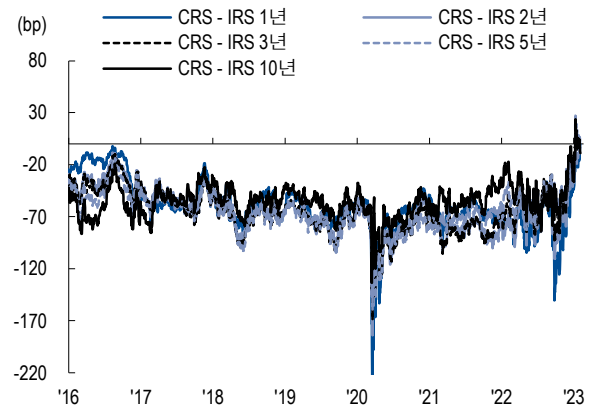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본드-스왑(IRS-KTB)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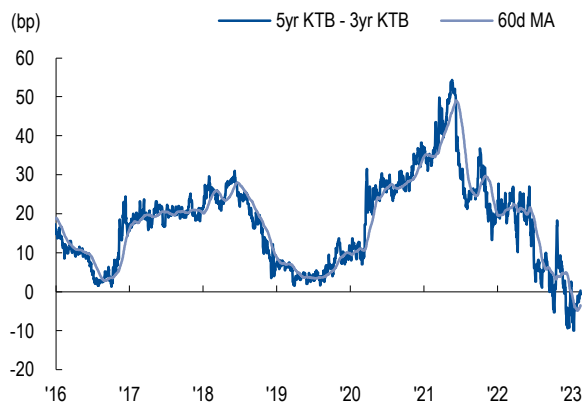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0. 스왑 베이스스(CRS-IR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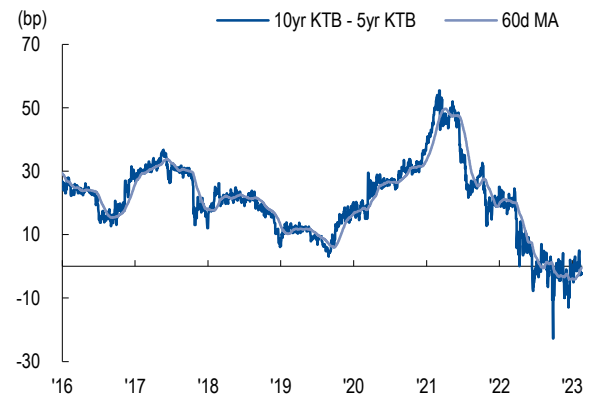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1. 국채 5년 - 국고채 3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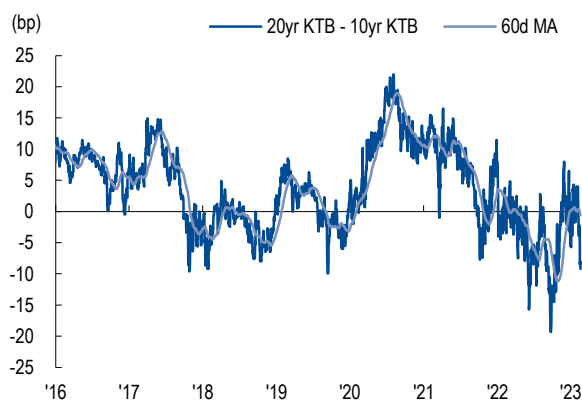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2. 국채 10년 - 국고채 5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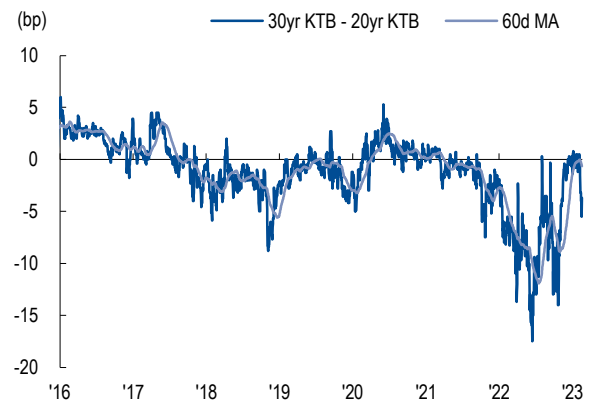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3. 국고채 20년 - 국고채 10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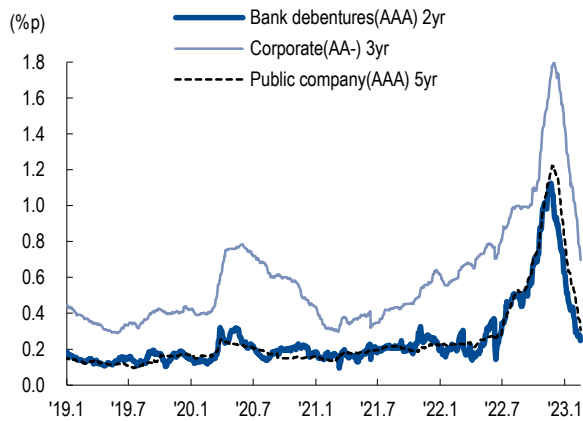
그림24. 국고채 30년 - 국고채 20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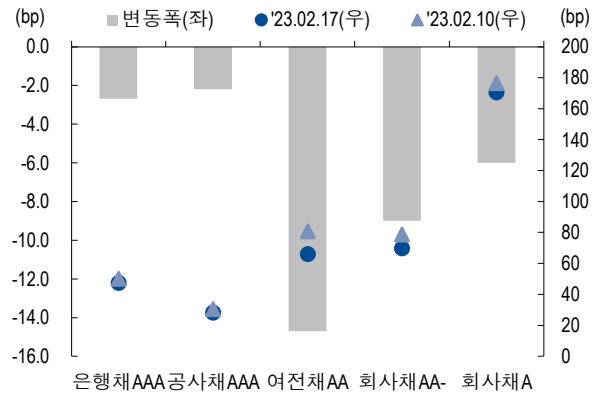
2) 신용스프레드 추이

그림25. 주요 신용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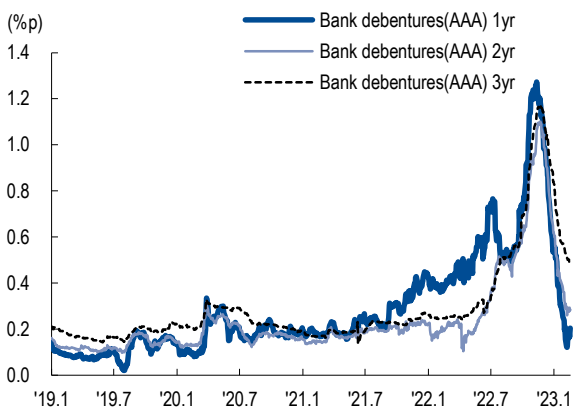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주요 섹터별 3년 신용스프레드 주간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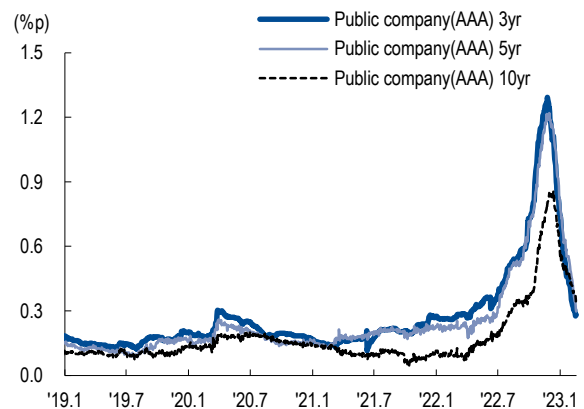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7. 주요 만기별 은행채(AAA) 신용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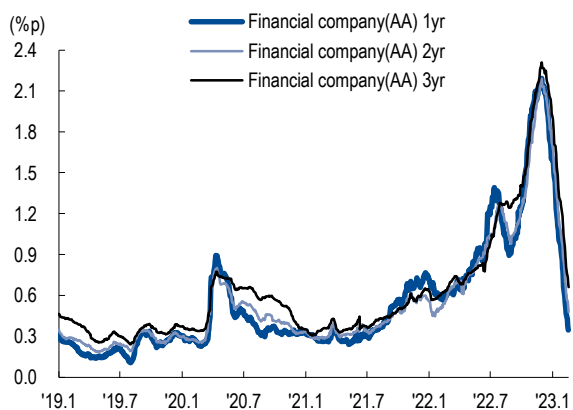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8. 주요 만기별 특수채(AAA) 신용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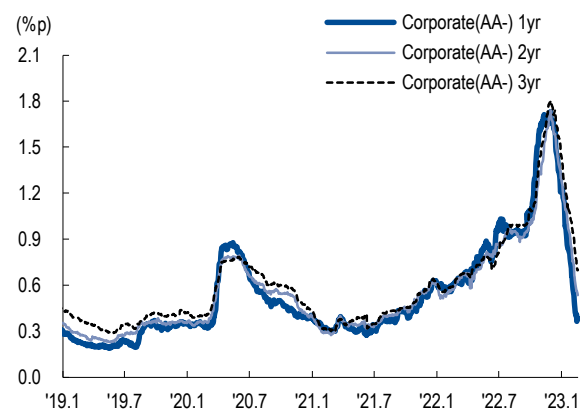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주요 만기별 금융기관채(AA) 신용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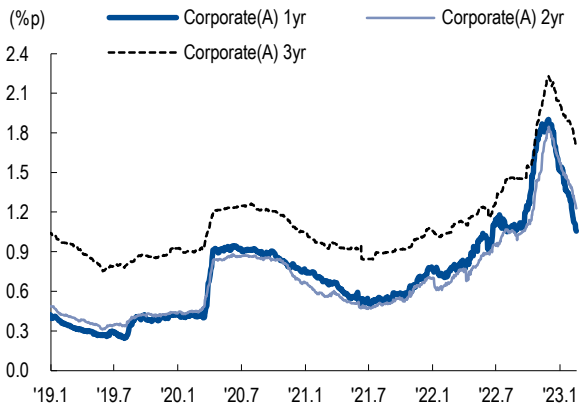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0. 주요 만기별 회사채(AA-) 신용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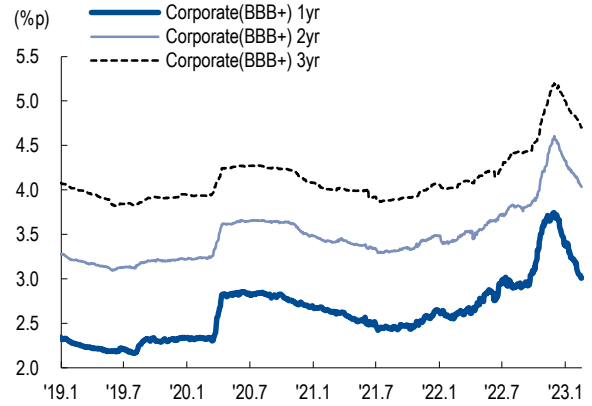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1. 주요 만기별 회사채(A)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2. 주요 만기별 회사채(BBB+) 신용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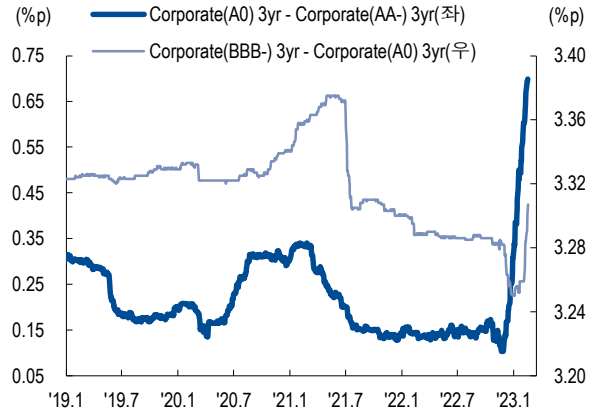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3. 등급간 회사채 3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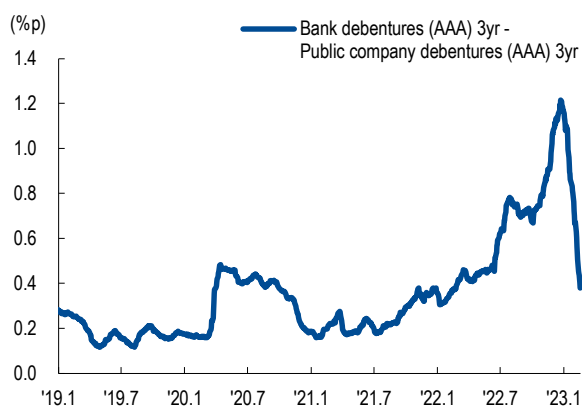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4. 상,하위 등급간 회사채 3년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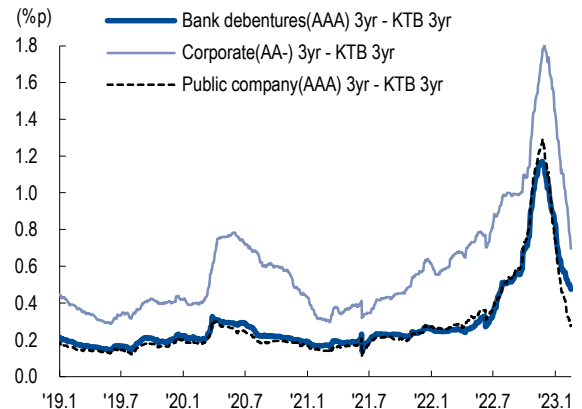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5. 은행채 3년과 공사채 3년의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6. 주요 섹터별 3년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표1. 글로벌 주요 채권수익률 비교

	종목	종가	1개월변동	3개월변동	1년변동	연초대비(ytd)
미국	기준금리	4.75	25.0	75.0	450.0	25.0
	국고채2년	4.63	41.8	11.6	315.9	20.6
	국고채10년	3.82	27.2	-0.6	185.7	-5.8
	IRS1년	5.40	33.4	21.2	420.4	27.6
	IRS3년	4.52	49.9	6.2	268.4	17.0
한국	기준금리	3.50	0.0	50.0	225.0	25.0
	국고채3년	3.64	15.6	-15.0	134.5	-8.8
	국고채5년	3.64	20.3	-20.4	116.0	-9.9
	국고채10년	3.62	17.7	-17.7	91.1	-11.6
	IRS1년	3.79	11.0	-40.5	186.3	-17.3
독일	기준금리	3.00	50.0	100.0	300.0	50.0
	국고채 2년	2.87	41.5	78.5	330.3	15.2
	국고채10년	2.44	35.3	43.1	221.2	-12.4
	IRS1년	3.45	36.6	74.9	378.9	22.4
	IRS3년	3.24	45.6	49.7	293.3	-0.2
영국	기준금리	4.00	50.0	100.0	350.0	50.0
	국고채3년	3.76	33.1	61.3	243.3	20.0
	국고채10년	3.51	19.0	27.7	204.9	-15.2
	IRS1년	4.43	5.2	8.4	290.6	-6.4
	IRS3년	4.11	14.5	-17.3	208.6	-31.4
중국	기준금리	3.65	0.0	0.0	-5.0	0.0
	국고채3년	2.52	2.7	7.4	25.5	10.4
	국고채5년	2.69	-1.4	7.0	21.7	7.2
	국고채10년	2.89	-3.6	6.6	10.9	2.6
	IRS1년	2.62	7.0	18.5	15.0	18.0
일본	기준금리	2.99	4.5	16.0	30.0	15.0
	기준금리	-0.10	0.0	0.0	0.0	0.0
	국고채3년	-0.01	-8.2	-0.2	-2.4	-6.9
	국고채10년	0.50	-0.1	24.9	28.1	8.8
	국고채10년	0.50	-0.1	24.9	28.1	8.8
호주	기준금리	3.35	25.0	50.0	325.0	25.0
	국고채3년	3.48	29.6	27.6	199.9	-2.1
	국고채10년	3.82	21.2	20.5	162.2	-23.1

주: 2월 17일 종가 기준

Event Calendar

월	화	수	목	금
2/20 국고채 10년물 2.3조원 입찰 (영/미) 공휴일 휴장 (독) 1월 PPI (EU) 12월 건설생산	21 국고채 교환 0.3조원 입찰 (미/EU) 2월 PMI (잠정) (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 (한) 20일까지 수출입 (독) 2월 ZEW 서베이	22 (독) 2월 IFO 서베이 (독) 1월 CPI 최종치	23 2월 금통위 2월 FOMC 회의록 (일) 공휴일 휴장 (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미) 4분기 GDP(2차) (한) 1월 PPI	24 (일) 우에다 BoJ 차기 총재 후보 청문회 (미) 1월 PCE (독) 4분기 GDP (수정치)
27 국고채 5년물 2.1조원 입찰 (미) 1월 내구재 주문, 자본재 수주/출하 (EU) 2월 ECFIN 서베이	28 국고채 20년물 1.0조원 입찰 (미) 2월 케이스윌러 주택가격	3/1 (한) 공휴일 휴장 (미) 2월 CB 소비자기대지수 (미/EU/중) 2월 PMI (한) 2월 수출입 (독) 2월 CPI (잠정) (호주) 4분기 GDP	2 2월 ECB 의사록 (미) 2월 ISM 제조업 (한) 1월 광공업생산 (한) 2월 제조업 PMI (EU) 2월 CPI (EU) 1월 실업률	3 (미) 2월 ISM 서비스 지수(3/4) (EU) 1월 PPI (미/EU/중) 2월 서비스 PMI (이탈리아) 4분기 GDP
6 (한) 2월 CPI (EU) 1월 소매판매 (EU) 3월 섀넥스 투자자기대	7 3월 RBA 통화정책회의 (미) 1월 제조업, 내구재 수주 (독) 1월 공장수주	8 (미) 2월 ADP 취업자 변동 (미) 3월 MBA 주택융자 신청 (독) 1월 산업생산 (EU) 4분기 GDP	9 (미) 1월 JOLT (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한) 2월 은행 총 가계대출 (중) 2월 CPI, PPI	10 3월 BoJ 금정위 (미) 2월 비농업 고용
13	14 2월 금통위 의사록 (미) 2월 CPI (미) 2월 NFIB 소기업 낙관 (한) 2월 수입, 수출 물가	15 1월 BOJ 금정위 의사록 (미) 1월 기업재고 (미) 2월 PPI (미) 2월 소매판매 (미) 3월 MBA 주택융자 신청 (미) 3월 뉴욕 제조업 지수 (한) 2월 실업률 (EU) 1월 산업생산	16 3월 ECB 통화정책회의 (미) 신규 실업수당 건수 (미) 2월 수입, 수출 물가 (미) 2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 3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17 (미) 2월 섀넥지수 (미) 2월 광공업생산 (미)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EU) 2월 CPI (일본) BOJ 부총재 임기종료 (3/19)

주: 발표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해외 경제지표는 한국 시각 기준

NH투자증권 채권 정기리포트 발간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22-10-11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경계해야 할 순환론 II
2022-10-17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소음과 정보
2022-10-24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신뢰 상실의 시대와 중앙은행
2022-10-24	차트 한 장, 채권시장	박윤정	LDI 펀드 다음으로 봐야할 것은 영국 부동산
2022-10-31	Fixed Income Monthly	강승원, 박윤정	[11월 전망] 연준의 트릴레마(Trilemma)와 해법 찾기
2022-11-07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미국의 특별함과 변동금리의 역습
2022-11-14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연준과 시장의 우월 전략
2022-11-28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내부의 목소리
2022-12-05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시장이 파월에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2022-12-12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12월 FOMC 시나리오 매트릭스
2022-12-19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말보다 숫자에 집중하는 채권 시장
2023-01-02	Fixed Income Monthly	강승원, 박윤정	[1월 전망] 저축 소비의 시대와 건축 주도권 이양
2023-01-04	DM Fixed Income Monthly	박윤정	[1월 전망] 연준과 갈리는 유럽: 건축의 방향은?
2023-01-09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수정된 임금 궤적과 1월 금통위
2023-01-16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그간의 인상 효과를 점검할 때
2023-01-30	Fixed Income Monthly	강승원, 박윤정	[2월 전망] 데이터가 바뀌면 그들의 생각도 바뀐다
2023-02-06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파월의 경로 vs 브레이너드의 경로
2023-02-06	DM Fixed Income Monthly	박윤정	[2월 전망]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근원 물가
2023-02-13	Fixed Income Weekly	강승원, 박윤정	울퉁불퉁한 물가 안정화의 길

NH투자증권 채권 이슈리포트 발간목록

작성일	종류	작성자	제목
2022-10-17	FI Spot Comment	박윤정	[영국 이슈 업데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2-10-28	Fixed Income Comment	박윤정	[10월 ECB] 이미 '상당함' 건축 단행
2022-11-03	Fixed Income Comment	강승원, 박윤정	[11월 FOMC] 높이>기간>속도
2022-11-14	Fixed Income Strategy	강승원, 박윤정	[2023년 FICC 전망] 채권: After Volcker
2022-11-21	Fixed Income Strategy	박윤정	[2023년 FICC 전망] 선진국 채권: 누가 유럽의 동아줄이 되어줄까
2022-11-24	Fixed Income Comment	강승원, 박윤정	[11월 금통위]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22-12-15	Fixed Income Comment	강승원, 박윤정	[12월 FOMC] 전망치의 맹점과 파월과 시장의 동상이몽
2022-12-16	Fixed Income Comment	박윤정	[12월 ECB] 어디까지 연준을 따라할 수 있을까
2022-12-16	Fixed Income Comment	박윤정	[12월 BoE] 제일 분명한 속도 조절
2023-01-13	Fixed Income Comment	강승원, 박윤정	[1월 금통위] 인상 종료, 4분기 인하 전망 유지
2023-01-18	Fixed Income Comment	박윤정	[1월 BoJ] 기싸움에 속지 말자
2023-01-25	FI Spot Comment	강승원, 박윤정	[연휴간 글로벌 채권시장 동향] FOMC 블랙 아웃 기간 전 마지막 신호
2023-02-02	Fixed Income Comment	강승원, 박윤정	[2월 FOMC] 더 이상 시장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 연준
2023-02-03	Fixed Income Comment	박윤정	[2월 BoE] 캐나다 다음은 영국
2023-02-03	Fixed Income Comment	박윤정	[2월 ECB] 라가르드를 믿지 않는 시장
2023-02-14	FI Spot Comment	박윤정	[BoJ 차기 총재 인선] 건축 시그널은 접수. 관건은 경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차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